

12 기획-후마니타스 우수강의 ⑤ 김광복 ‘영화제작기초’



영화는 재현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그것과 소통하게 하는 미디어다.

(사진=픽사베이)

# 쓸 수 있거나 사유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영화가 될 수 있다



**김 광 복**  
교수 · 후마니타스칼리지

#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식과 사고의 틀을 함양하는 것을 지향한다. 우리신문이 앞으로 총 7회에 걸쳐 기획하는 ‘후마니타스 우수강의’에서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의 중 우수강의로 선정된 강의 교수자의 기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양 강의 지침서를 제공한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강의평가를 기준으로 우리신문이 자체적으로 선정했으며, 국제캠퍼스는 ‘후마니타스칼리지 선정 우수강의’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국제캠퍼스는 직전 학기 강의평가 점수와 수강생들이 작성한 주관식 답변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교과영역별로 후마니타스칼리지 우수강의를 선정하고 있다.

1895년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2월 어느 날, 프랑스 파리의 중심가 카푸신 대로에 있는 어느 카페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살아 움직이는 사진’을 보여준다는 말을 듣고 온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하얀스크린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웃했다. 하지만 불이 꺼지더니 어둠 속에서 마술과도 같은 활동사진, 그러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전차가 지나며 바다에 파도가 일렁이는 풍경이 눈 앞에 펼쳐지자 그들은 놀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이유식을 먹으며 방긋 웃는 아이, 카페에서 카드 놀이를 하며 다투는 사람들 앞에서는 체면도 잃고 우하하하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바로 오귀스트와 루이 루미에르 형제가 만든 최초의 영화가 인류 앞에 선보이던 순간이었다.

여러분은 ‘영화제작’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아마 고성능 카메라, 조명기와 같은 값비싼 장비와 함께 전문 인력과 배우들이 모여 촬영하는 풍경이 떠오를 것이다. 어쨌든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 같고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든 영역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필자 또한 마찬가지로의 입장으로 <영화제작기초> 강의를 처음 맡게 되었을 때 걱정이 앞섰다. “영화를 만드는 수업? 그것도 영화 전공과목이 아니라 교양인데?” 이런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영화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질문에서 답을 찾고자 했다. 바로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다.

뤼미에르 형제가 만든 영화가 처음 상영되던 그날, 관객들은 무엇에 놀라고 또 웃었을까? 바다가 일렁이고 아기가 방긋 웃었기 때문일까?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이웃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재현한 이미지였을 것이다. 스크린 위에 영화로 재현된 세상은 원래의 그것과는 달리 보이고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니 말이다. 자, 그러면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는 재현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그것과 소통하게 하는 미디어다”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영화제작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듯이 누구나 영화라는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것일 테니 말이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풀 메탈 자켓> 등을 연출한 감독 스탠리 큐브릭은 이렇게 말한다. “쓸 수 있거나 사유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영화가 될 수 있다(If it can be written, or thought, it can be filmed).” 이것은 필자가 <영화제작기초>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궁금해하는 학우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다. 혹시 ‘영화제작’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에 수강하기가 저어된다면 그런 생각은 필요치 않다. 동료 학우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화를 만들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니 말이다.

또 전문적인 장비가 없어도 괜찮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로도 얼마든지 영화를 촬영하고 편집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극장용 영화도 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된 프로그램으로 편집이 가능해진 시대다. 더욱이 완성한 영화를 공개할 수 있는 동영상 플랫폼도 많으니 영화를 만들고 상영하기가 더욱 수월해졌다.

영화를 만드는 과정은 <영화제작기초> 수업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수강하는 학우 개개인의 기억에 바탕을 둔 이야기를 글과 함께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이미지로 정리한 포토에세이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다음 단계는 포토에세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쓰게 된다. 포토에세이와 시나리오는 같이 영화를 만들고 싶은 학우들끼리 팀을 만들 수 있도록 수업 시간 및 e-campus를 통해 다른 학우들과 공유하고, 그렇게 영화 제작을 위한 팀이 만들어지면 기말까지 짧은 단편영화를 완성하게 된다.

영화제작활동과 더불어 화면구성, 미장센, 몽타주와 같은 영화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종종 머리가 지끈거리는 실험영화를 보면서 뇌세포를 자극하는 시간도 가지게 될 수 있다. 학우들이 영화제작을 하면서 팀원끼리 서로 친해지고 재미있었다는 후기를 접할 때마다 필자는 신이 난다. 영화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을 떠나 여러분 젊은 날의 좋은 추억으로 남는 수업이 되는 게 이 수업에 관한 가장 큰 바람이다.

“  
영화제작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듯이 누구나  
영화라는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것일 테니 말이다.

”